

집에 가고 싶다





진정한 휴식을 위해서 집에 있는 것 보다
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.

-제인 오스틴 -

카페도 되고 극장도 되고 맛집도 되고 책방도 되는 곳
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집
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



집커피

아침 잠을 깨워주는 나만의 카페



쉽게 따라하는 핸드드립



드리퍼



서버



좋아하는 컵



뜨거운 물
(87~90도)



커피가루가 젖을
정도로 물을 붓고
30초동안 음을 들입니다.



가느다란 물줄기로 커피의
중심부터 나선형을 그리며
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를
3-4회 반복합니다.



잘 부을 경우 머핀처럼
부풀어 오릅니다. 추출시간은
3분을 넘지 않게 해주세요.



추출된 커피는 위 아래의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.
수저 등으로 잘 저어서 컵에 따릅니다.

집극장

발길질, 통화, 취식 가능한 나만의극장



집돌이 집순이를 위한 영화, 방송 “집 나가봐야 고생이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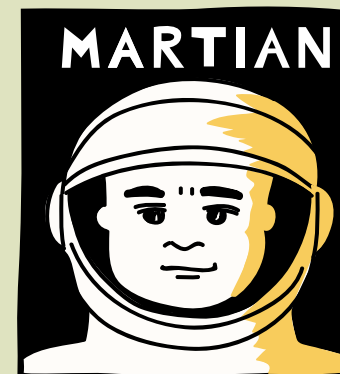
• TV 프로그램

MAN
VS
WILD

인간 대 자연 (Man vs Wild)

집을 떠나 오지로 간 베어그릴스가
고생 고생하다가 결국 집에
집에 돌아온다는 이야기.
교훈은 집이 최고.

• 영화



마션 (Martian)

집을 떠나 화성으로 간 마크가
고생 고생하다가 결국 집에
집에 돌아온다는 이야기.
교훈은 집이 최고.

집 맛집

내 입에 딱 맞는 나만의 맛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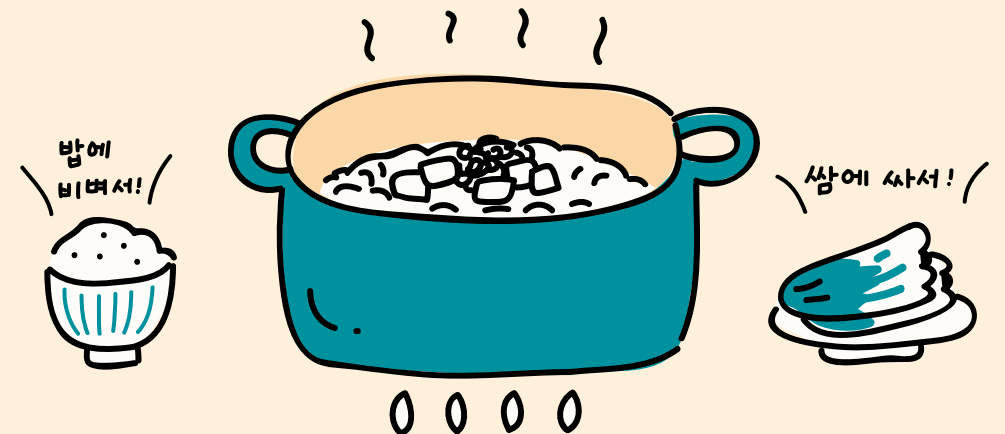
혼자도 여럿이도 만족하는 건강 레시피 (초간단 조갯살 강된장)

• 재료



• 10분 완성 레시피

채소는 모두 작은 크기로 깍둑 썰어줍니다.
냄비에 물 한 컵 붓고 준비한 채소와 양념을 넣고 끓여주세요.
(물이 많으면 찌개 처럼 될수 있으니 자작하게 넣어주세요)
감자가 익으면 마지막에 조갯살을 넣고 살짝 끓여주면 완성!



집 책방

뒹굴거리며 읽는 나만의 도서관
수면, 취식 자유



책 읽기 좋은 장소 찾기

식탁에서



부엌 식탁에서
카페의 여유를 느끼며
미뤄둔 잡지 읽기.

화장실에서

아주 짧지만
책이 가장 잘 읽히는
은밀한 순간



창가에서



자연광을 스텐드 삼아
한낮의 독서 시간 즐기기

집 청소

그래도 가끔은 사람 사는 것처럼 보이려면



마법의 청소법

청소 안 하고도 청소한 듯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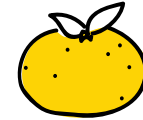


집귤

겨울은 귤이다!



귤, 어디까지 먹어 봤니?



노지감귤극조생

가장 친숙한 귤. 껍질이 얇고 매끈한 게 특징.
가장 빨리 출하되는 극조생이라고 하고, 10월 중순에 출하됨.
11월 중하순에 출하되는 귤은 조생이라고 함.



한라봉

한라산을 닮음. 보통 2~3월이 가장 맛있다.



청전오렌지

+



노지감귤극조생



천혜향

하늘이 주신 향기라는 의미.
껍질이 얇아서 까기 쉽다. 3~4월에 잠깐 수확됨.



한라봉

+



청전오렌지

+



노지감귤극조생



황금향

당도가 높고 산도가 낮아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좋음.
7~12월에 수확됨.



천혜향

+



노지감귤극조생



레드향

붉은 빛이 특징. 1~4월까지 맛볼 수 있다.



한라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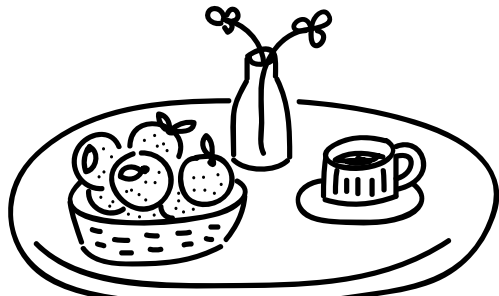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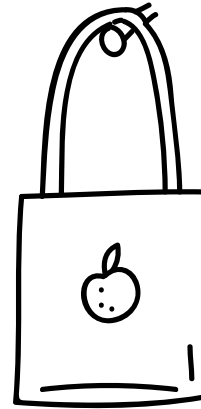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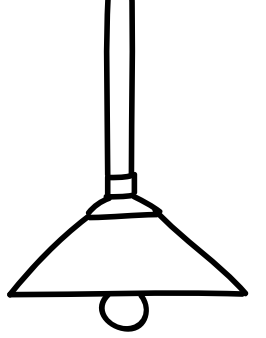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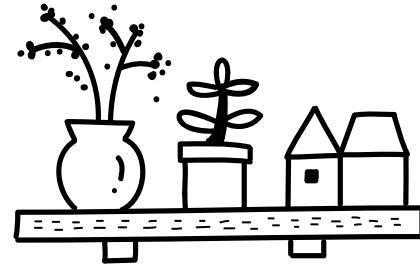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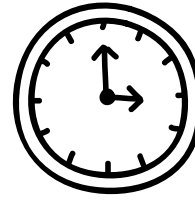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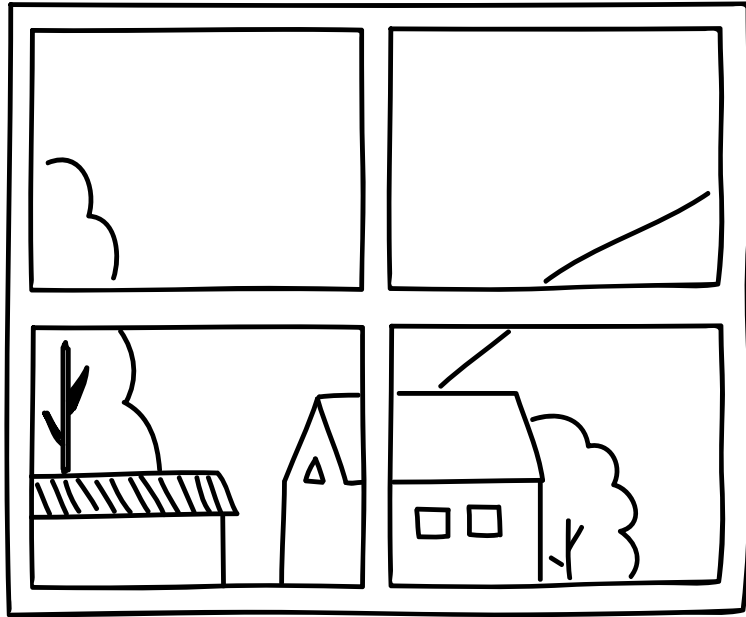
+



노지감귤극조생

♣ 색칠놀이 ♣

좋아하는 색으로 집을 칠해보세요.



출근하자마자 하는 생각 1위
"아. 집에 가고 싶다"

하지만 집에 가는 길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.
2015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8% 상승했지만 그 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.1% 오르는데 그쳤습니다. 그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7.1년을 꼬박 모아야만 합니다. 그런데 2014년에는 6.1년을 온전히 모아야만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으니, 사실 2014년 한 해 모은 돈은 고작 상승된 전세 값을 치르는 것에 그쳤습니다.
그나마 좋은 일자리조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해져만 가고 있습니다.
그런데, 대다수의 기사와 정부 정책은 집값의 하락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미래에는 이런 집에 가길 꿈꾸어 봅니다.

- 집세 걱정 없는 집
- 난방비, 옷콩 걱정 없는 집
- 전동리피케이션으로 동네가 떠들썩하지만 끔찍없는 집
- 아이들이 함께 골목에서 뛰노는 집

그 집에 가는 길을 함께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.

집에 가고 싶다 캠페인의 목표

변화의 진입 조건 만들기

- 주거비 보조
- 기본주거시설 제공
- 낙후된 주거공간 보완
- 노숙인 지원

문제 자체의 변화

- 주거의 질
- 주거 환경과 접근성 개선
- 독립적 생활 공간

변화의 유지

- 최저주거기준 확보

변화의 토대

- 주거 불평등과 사회적 주거환경 개선

‘함께 참여해 주세요’

검색창에 로 검색하시거나

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
WWW.beautifulfund.org / 02-766-1004



아름다운재단

www.beautifulfund.org | 02-766-1004